



나이들은 삶의 아름다운 과정

인식론, 유전과 진화, 인류학 등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생물학자가 바라본 죽음과 쇠락에 대한 유쾌한 찬사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누구나 연말연시가 되면 가는 세월을 아쉬워 한다. 후자는 쓸데없이 나이만 한 살 더 먹는다고 서글퍼 하기도 한다. 이처럼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해가 갈수록 서서히 늙고 소멸해 간다. 모든 살아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은 시간이라는 날카로운 이빨에 상처받고 힘없이 스러져간다. 그렇다면 대체 생물들은 어떻게 늙고 죽어가는 것일까.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적은 방대한 진술서다. 시간에 의해 조금씩 마모돼 가는 만물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안의 철학적 의미를 탐색해 보는 이 책은 생물학과 인식론, 유전과 진화, 인류학 등 제반 학문의 폭넓은 내용이 버무려진 독특한 교양서다. 네덜란드의 저명한 생물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책의 지은이 미다스 데커스는 이 책을 통해 나이들과 쇠락에 대해 오히려 짓궂은 찬사를 보낸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예시를 통해 더욱더 이 짓궂은 찬사를 견고하게 펼친다. "늙어서 쇠약해진 코끼리들이 조용히 죽기 위해서 찾아가는 장소가 있다는 말이 있다. 숲 속 깊은 은밀한 곳에서의 마지막 절규와 몸부림, 그리고 나서 이들의 육중한 몸은 쓰러질 것이다. 물론 이들의 마지막 비명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속속리 때는 볼 수 있으며 하이엔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마치 슬픈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묘사지만 이것을 통해 지은이는 시간의 진행에 따른 쇠약과 소멸은 매우 자연스럽고도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연과 동물의 세계를 모델로 삼아, 죽음과 쇠락을 거부하면 삶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쇠약해진다는 것은 마치 얼마나 멀리 여행했는지 알려주는 시계와 같다"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런 노화는 비단 동물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지은이의 설명이다. 그는 이탈리아 조각을 또 하나의 예로 제시한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에 있던 99m 높이의 조각이 1902년 갑자기 무너졌다. 1000년 넘게 도시의 상징으로 우뚝 서있던 건물이 왜 그렇게 갑자기 무너졌을까. 전문가들은 큰 종자로 인한 소음과 진동, 기초와 벽의 부실공사, 믿음의 부족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한 평범한 시민의 입에서 나왔다. "건물이 너무 늙어서 무너졌죠."

이처럼 모든 만물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사코 퇴락과 변화를 부정한다. 오래된 건물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돈을 들여 '옛날의 위용'을 되찾고자 해도 복원 과정에서 그 집의 오래된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만다.

완벽하게 꾸며진 성(城)보다는 폐허가 된 성에서 오히려 더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는가. 또한 뜨는 해보다는 지는 해가 오히려 더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는가. "저물어가는 폐허도 하나의 균형 잡힌 생태계라"는 지은이의 강조 사항은 연말연시를 맞아 나이들을 서글퍼 하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된다.

또 지은이는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저녁이 되어도 잠자리에 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죽지 않는 종족을 만나 본 '클리버'도 이렇게 다짐하지 않던가. "어떠한 특재자도 내가 살 속에서 얻는 기쁨을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지은이는 이와같이 박식하면서도 재기발랄하고 심오하면서도 짓궂기까지 한 매혹적인 이야기 솜씨로 쇠락을 거부하면 삶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들을 다독인다.

허물어진 사원, 녹슨 채 버려진 기관차, 이빨 하나만 달랑 남은 노파... 지은이는 나이들, 소멸, 폐허에서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지은이는 말한다. "타이타닉호가 후대에 불멸의 이름을 남긴 것은 거대하거나 화려해서가 아니라 '침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은이는 '아름답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의 파괴이다'라는 서양 속담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폐허는 파괴의 흔적이 아니다. 창조를 잉태하고 있는 시간의 더께이다. 괴테가 폐허가 된 로마 유적지를 돌아본 뒤 '이탈리아 여행기'를 쓴 것은 폐허를 통해 새로움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부패도 때론 창조의 원천이 된다. 박테리아의 작용이 없이는 결코 우유가 치즈로 될 수 없다. 포도가 부패하지 않고는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법이다.

"죽음은 팔락이 아닌 또 하나의 완성. 그래서 모든 죽어 가는 것은 아름답다." 지은이가 45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에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단 한줄의 말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시간의 이빨
미다스 데커스 지음 | 오윤희·정재경 옮김
영림카디널 펴냄 | 2만원



경영이란 무엇인가
조안 마그레타 지음 | 권영설·김홍렬 옮김
김영사 펴냄 | 1만5900원

지금같이 어려운 패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업으로 치면 불황 때 경영을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책은 이 때 유용한 '경영학 경전'이다.

지은이는 유명한 경영잡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편집장을 지낸 인물. 펄시콜라가 1970년대 플라스틱 병을 사용해 코카콜라에 타격을 입힌 사례 등을 들어가며 경영의 9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그 중에는 '아웃소싱이나 합병 등과 같이 1990년대 유행했던 조직론은 상당히 위험하다' '아무리 훌륭한 성과측정 도구라도 모든 것에 들어맞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지은이는 "경영에는 지식과 인간적 통찰력이 모두 필요하다. 분석력과 감수성, 정열과 호기심, 결단력과 인내력도 요구된다. 경영자는 무엇이든 틀릴 정도로 의심이 많아야 하고 어떤 것도 당연시해서는 안되며 그러면서도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믿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렇다면 과연 경영이 자본과 인간성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 경영은 종합 예술이라고 칭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책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 답

경영의 기본원리와 방법론

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저술 의도라고 판단된다.

책의 전반부에는 경영의 핵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자주 쓰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는 '가치창조'의 설명을 시작으로,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계획을 일컫는 '비즈니스 계획', 그리고 회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과 전략을 시행할 '조직'에 대해 알아본다. 전반부가 이론적인 것에 대해 다루었다면, 후반부는 실행에 관한 내용이다. 여러 가지 수치를 통해 데이터가 주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목적을 구체화하고, 조직원들의 노력을 결집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짚어본다.

이 책이 가슴에 와 닿는 이유중 하나는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시종에는 '하는 몇 가지 방법', '가장 ~한 책' 등 덩달아도 써먹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제목을 달고 나와 있는 책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은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을지 모르나 총체적인 이해를 돕는 데에는 적절치 않다. 하지만 이 책은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접근해 경영에 관한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은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단점이 있으나, 알기 쉬운 문체와 각종 사례를 통하여 현실감도 높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책들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책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 논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각각의 분야마다 지은이가 참고한 책 및 추천 서적이 소개돼 있어 관심이 있는 분야의 심층적인 공부가 가능할 것 같다. 경영자의 꿈을 갖고는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책으로 경영이라는 문에 노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동현(한라대 경영학과 강사)

도서구입은 www.yosiamun.com

유쾌하게 읽는 불교

지금까지 이런 불교입문서는 없었다. 현대적 시각으로 가장 쉽게 설명된 불교입문서! 정확하고도 모범적인 불교 교리 해설서!

동승동 / 고명석 지음
신국판 293쪽 / 값 9,000원

불교미술기행

한국 불교미술의 원류를 파헤치는 책 불교 조각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무슨 뜻에서 그런 조각이 만들어졌는지 등 다양한 부분을 해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각만이 아닌 인도나 중국 등의 불교미술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가서 / 조병철 지음
신국판 310쪽 / 값 15,000원

마음이 쑥쑥 나는 불교이야기 129

좋은생각, 좋은 아이, 밝고 아름다운 세상! 맑고 건강한 삶을 위한 어린이 명상집

의미 없는 천가지 말보다 단 하나라도 마음을 일깨워주는 말이 훨씬 더 소중하다. - 범규경 -

바다교실 / 양태석 글 이재순 그림
신국판 199쪽 / 값 8,000원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반야심경에 담긴 삶의 지혜 '도대체 이런 가르침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됐는지 모른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실질적인 행복과 내적 평화로 이끌어 준다.

도서출판 무한 / 범상선 글 · 사진
신국판 374쪽 / 값 10,000원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看話禪)

산사에서 열심히 수행정진해 온 선원집중 수좌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조계종 수행지침서!' 한국선의 근간을 이루는 간화선은, 공안을 참구하여 의단을 타파하고 자성을 깨닫는 환구참선법이다.

조계출판사 / 불학연구소편
신국판 양장본 437쪽 / 값 15,000원

2005년 불교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불서 10**

'올해의 불서 10선'은 올해의 대표적인 불서로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엄선한 책입니다. 불자들을 위하여 해마다 출판된 책 중에서 '10선'을 선정합니다!

진정한 불자는 책을 읽습니다

● 구입문의: 불교서적전문 서시아문 02)2004-8220/737-0695 / www.yosiamun.com ● 전국 각서점에서 정점의 판매 중입니다

● 협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법보신문사,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영화로 불교를 만났다!!! 영화를 통해 불교의 진리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책. 총 33편의 영화를 7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치 / 월호지음
신국판 180쪽 / 값 9,800원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마음, 마음이란 무엇인가? 대승불교의 핵심적 사상을 요약적으로 설명. 이 책은 마음의 본질과 작용, 그리고 깨달은 마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통해서 깨달음과 무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불광출판부 / 서관섭 지음
신국판 235쪽 / 값 8,000원

불교풍속고금기

사찰의 생활과 풍속에 대한 50가지 이야기 불교에 대한 소박한 궁금증에서부터 사찰의 생활과 모습 속에 담긴 깊은 뜻까지,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줄으로써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은행나무 / 박부영 지음
신국판 319쪽 / 값 13,000원

선문염송 염송철화 (1-10)

선문의 내용 중에서 염송을 주로 다룬 '선문염송'과 염송의 주석서인 '염송철화'를 회편하였다. 「한국불교전서」 제5책의 '선문염송염송철화본'을 저본으로 「선문염송」 원문은 역자가 원토하여 번역문 다음에 수록하였고 「염송철화」는 서울대 규장각본을 책 뒷면에 영인하여 실었다.

동국역경원 / 김윤성 옮김 해설 · 각문 지음
신국판 양장본 680쪽의 / 각권 20,000원

잊혀진 가람 탐험

소설가 황석영씨가 추천하는 화제의 책 잊혀진 우리의 가람터, 그 옛 주소로 가다! 시인 장지현의 전국 폐사지 순례기

여시아문 / 글 장지현 · 사진 고영현
4×6배판 변형 360쪽 / 값 23,000원